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장 성 진*

1. 머리말
2. 소련군 교범과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3. 전투훈련의 성과와 지속성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조선인민군)은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낙동강선 일대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비록 작전계획의 단계별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해방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군사력 건설의 성과였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초기에 낙동강선 일대까지 북한군이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지도 및 작전지도, 병력, 무기체계(전차, 항공기, 포병화력 등), 작전계획, 훈련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설명되었다.¹⁾

*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2005),

하지만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의 핵심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훈련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남북한 병력의 결정적 차이가 북한의 “불의의 기습남침”을 가능케 한 요소는 아니었다.²⁾ 북한군은 군사력 증강의 양적 측면인 병력과 무기의 확보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질적 측면인 고급지휘관 양성과 장교, 병에 대한 교육훈련도 진행되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투훈련은 소련군 교범에 입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창설된 북한군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온 부대에 대한 훈련도 소련군 교범에 입각하여 훈련되었다. 왜냐하면 중국내 소련의 군사고문단은 1940~50년대 중국인민해방군의 창설과 조직화, 그리고 훈련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³⁾ 동북의용군 부대 또한 소련군의 전술 교범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⁴⁾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주요 참전자 회고록에는 북한군의 전투훈련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⁵⁾ 전쟁 초기 전쟁으로 돌입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군은 훈련수준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북한군의 훈련명령이 곧바로 전투명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중대 실탄사격 훈련 명령을 받은 371군부대의 행동은 사실상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다.⁶⁾ 실탄사격훈련이 평소 하계 및 동계 훈련의 마무리 훈련이었으며, 이 훈련이 실전과 같았기 때문에 전쟁의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투훈련은 북한군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였다. 따라서 전쟁 초기 전투 양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pp.779~795. :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집문당, 2001), pp.477~493참조.

2) 정병준, 『한국전쟁: 38도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pp.319, 332.

3) 신병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573.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 건국』, p.690.

5) 여정,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 김석중, 『삭풍』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2) :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문학, 『조국』 상(서울: 현장문학사, 1990)

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결정과 발발(서울: 나남출판, 1996), p.402.

북한군 창설시 교리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리를 어떻게 활용하여 훈련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전 북한군 전투훈련에 대한 연구는 북한군 노획문서⁷⁾와 북한군 교범을 활용한 박명림과 김광수에 의해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다. 북한군 전투훈련에 대해 박명림은 1949년 동계훈련, 1950년 4월의 검열, 그리고 1950년 하계훈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KLO⁸⁾ 리포트와 노획문서, 회고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⁹⁾ 그는 당시 주요 훈련내용이 군사예절, 전투훈련, 정치훈련, 체력단련, 보초, 기타 등이며, 검열 이후에 실시된 1950년 5월의 하계훈련은 전쟁준비 점검이면서 동시에 전쟁준비의 위장임을 밝혔다.¹⁰⁾ 하지만 1949년 동계훈련 이전에 북한군이 어떤 훈련을 하였으며,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교육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김광수는 당시 전투훈련이 교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였다.¹¹⁾ 1946년 후반부터 북한군은 소련군대의 편성제도, 무장, 교리, 훈련 방법에 의해 조형되었으며, 항공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소련의 연간 훈련주기를 적용하였으며, 소련의 교범체계 번역 발간을 통해 소련군 교리를 흡수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교범과 훈련의

7) 노획문서란 한국전쟁 중 유엔군에 의해 노획된 북한문서로 그것들은 모두 미국 국립문서보관서(NARA) Record Group 242 Captured Enemy Documents(North Korea)로 분류된 문서들을 통칭한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노획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보관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과 군사편찬위원회의 사료집 총서인 『북한군관계사료집』 포함된 문서를 노획문서 선적분류기호(Shipping Advice)를 사용하고, 선적분류기호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의 경우 미 극동사령부 연합번역통역반이 붙인 문서번호만을 인용하였다. 이후 노획문서는 RG242 SA.번호, Box 번호, Item 번호 형태로 표기한다.

8) KLO는 '주한연락사무소(Korean Liaison Office)'를 칭하며, 당시 KLO의 소속과 직속 상부기관을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미 극동군 일반참모부 AC of S, G-2(정보부장)에 소속되어 각종 첩보를 제공하였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KLO-TLO문서집』 1권 (춘천: 한림대 출판부, 2000) 참조.

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pp.345~351.

10) 위의 책, p.349.

11)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61~77.

연관성을 긴밀하게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에 대한 세부내용, 그리고 교범과 훈련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군 창설과정에서 소련군 교리를 번역한 교범의 내용이 어떻게 전투훈련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군 전투훈련 체계와 주요 교범을 개관하고, 주요 교범 중에서 『야전규정』과 『보병전투규정』의 내용이 훈련의 모습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획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북한군의 전투훈련의 결과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개성, 웅진의 38도선 충돌에서 어떻게 투영되었고, 한국전쟁 초기에 어떻게 전투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련군 교범과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1) 북한군 훈련 체계와 교범

북한군 교육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분야로 구분된다. 바로 정치훈련과 전투훈련이다.¹²⁾ 이는 김일성의 ‘조선인민군 창건일’ 연설에서 확인되며, 현 북한군의 군사전략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8일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한군의 과업을 정치훈련, 전투훈련, 민군일치라고 제시하였다.¹³⁾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정치훈련과 전투훈련에 대한

12) 정치훈련에 대해서는 장성진,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14권 2호(2011) 참조.

13) 북한군의 과업에 대해서 첫째, 규율을 확립하고, 정치사상 교육 등을 통해 “애국 사랑으로 무장”하고, 둘째, “군사학과 전투 기능에 능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군대에 대한 애호, 군대 물품의 제공 및 확보 등에 의한 “전체 인민의 사랑과 적극적 방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535~546 ; 서대수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4권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249~256.

믿음은 절대적이다. 북한군은 고귀한 사명감과 ‘혁명정신’을 지녔으며, 전사로서의 믿음과 자기희생의 중요성 등으로 국군에 비해 정치, 정신, 육체, 군사적으로 더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북한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 정치훈련과 전투훈련을 통해 북한군을 양성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 전투훈련은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이라는 군사체계를 통해 양성된다.¹⁵⁾ 여기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훈련국의 『정치상학교재』에 의하면 “군사과학이란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쟁행위의 리론과 전술에 따르는 종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및 전문적인 군사지식인 것이요. 부분적으로 말하면 무력의 전투적 행동을 종합하여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과 방어의 법칙을 연구하며 각종 병종의 협동동작과 전략, 작전, 전술 및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⁶⁾ 또한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보병은 탄도학, 분해 및 조립, 사격이론 등에 대한 교육을, 포병은 포의 전투적 특성, 포의 기술적 부분과 전술적 운용 등에 따른 각 병과의 전술과 기술적인 부분을 의미한다.¹⁷⁾ 즉, 군사과학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군사예술보다 개념이 더 넓고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¹⁸⁾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전략 혹은 작전술에 해당되며, 군사기술은 전술과 무기체계의 운용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군사과학의 개념에서 군사과학을 제시해준 북한의 교범이 1948년도에 총참모부 번역과에서 소련군 교범을 그대로 번역한 『야전규정』이다. 이 교범은 훈련과 전략, 전술의 기본 교범이었다. 또한 군사기술에 있어서 보병부대는 『보병전투규정』, 공병부대는 『육군공병부대 전투훈련강령』 등 각 병과별 교범을 통해 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과학에 있어서는 『야전규정』과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보병부대 교범인 『보병전

14) 조셉 S. 버뮤데즈, 김광수 역, 『북한군: 구조와 변동』 (서울: 황금알, 2007), pp.25~41.

1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27~28.

16)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 (종합편) 1950. 5. p.98.

17) 『정치상학교재』, pp.100~102.

18)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대남관계”.

투규정』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훈련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군 군사과학과 『야전규정』

김일성의 군사전략구상에 있어서 전략목표는 중요지점의 점령보다는 적 군사력 격멸에 두고 있다.¹⁹⁾ 이는 1950년 12월 21일 별오리 회의와 한국전쟁 초기전투에서 소련군에 의해 작성된 전략계획구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종학은 소련군이 북한군에게 작성해 준 전략계획의 기본적 바탕은 바로 1936년 개정된 『야전요무령』이며, 이는 1930년에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투하체프스키(Mikhail N. Tukhachevskii) 원수의 전략이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았다.²⁰⁾ 이종학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군은 한국전쟁시 소련군의 교리를 적용하였고, 그 교리에는 공세주의, 섬멸주의, 기습, 화력중시, 기동전, 전종심동시제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군사과학에 있어서 실제 적용된 교범은 1938년 내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임시아전규정』이 아닌 1945년도 재판된 『야전규정』이다. 이는 조선인민군참모본부에서 1948년 4월 번역한 『야전규정』 서론에 제시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1948년 번역, 출판된 『야전규정』의 성격에 대해 1938년판 『임시아전규정』은 노후하였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로 1945년도에 출판되었으며, 각 병종의 협동동작을 강조하면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¹⁾ 따라서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1948년 4월에 번역 발간된 『야전규정』을 기반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전규정』에서는 공격전투를 북한군 전투행동의 기본 형태로 보고 있으며, 포병과 항공기 공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병과 전차의 협동동작, 측면 우회와 포위를 통한 기동전, 축성과 요새화를 통한 완강하고 적극적인 방어, 인접 및 측면에 대한 보장, 퇴각의 불허용, 포위

19)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원, 1983), p.271.

20)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앞의 글, p.272.

21) 조선인민군참모본부, 『야전규정』 1945년도 출판(1948년 4월 번역), 서론, p.1.

하에서의 전투 요령, 후방지역에서의 빨치산 운동 등을 기본적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²²⁾

특히 『야전규정』에서 제병과의 협동동작에 대한 내용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대전쟁은 보병, 기병, 포병, 전차, 기계화 보병의 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는 당시 포병과 항공기 등의 무기체계의 발전과 연계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총칙 제8항에 의하면 “각 병종의 협동동작은 근대전투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생략) 보병의 이익을 위주하여 조직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병을 중심으로 제 병과 협동동작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²³⁾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포병, 전차, 항공기의 운용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보병을 중심으로 각 병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동동작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한국전쟁 초기 전투에서 전차와 포병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항공기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쟁 이전의 노력과 초기 항공기 전투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에 의해 제공권을 상실함에 따라 교리의 제병 협동동작의 발휘는 제한되었다.

제병협동전투와 함께 소련군 교리는 기동전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기동전에 대한 강조는 소련이 제1차 세계대전과 내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전보다는 기동전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결과이다.²⁴⁾ 교범에서는 “현대전투행동은 주로 기동성을 가지고”, “측면우회를 조직하여 실시하고, 포위하여 적의 집체를 포로하던가 또는 소멸하는 기술을 요구”한다고 제시하며 당시 기동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²⁵⁾ 또한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에는 “부대는 (생략) 각종 전투에서의 기동 및 화력 집중법을 교육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부대훈련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기동을 중시하고 있다.²⁶⁾

22) 『야전규정』, 서론, pp.2~8.

23) 『야전규정』, 1. 총칙 8항목, p.10.

24) 이석호, “소 연방 군사교리의 기원과 발전과정: 1917~1991”, 『군사』 47(2002년), p.135.

25) 『야전규정』, 서론, 6항목, p.5.

26) 리형, “공격전투시의 보병구분대의 기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군사지식』 4(1950), p.7. RG242, SA 2008, Box 19, Item 25.

교범에서는 이와 같은 기동전 수행을 위해 전차집단군, 기계화집단군, 독립기계화여단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련군은 군사술과 무기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부대를 창설하였다. 즉, 소련군은 전차집단군(Tank Army), 기계화집단군(Mechanized Army)은 작전, 전술적 단위의 연합부대로 주공방향에서의 전과확대, 추격, 방어시 반격 임무 등을 부여하여 전차를 대규모 집중 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1949년 3월 조·소협정에서 110여 종의 전쟁물자중 제1차로 기갑장비를 집중 지원하였다.²⁷⁾ 그 결과 258대의 전차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²⁸⁾ 집단군을 형성할 수 있는 전차의 수량에는 부족하였고, 따라서 단지 1개 전차여단만 편성하였다.²⁹⁾ 당시 유일한 전차여단이었던 제105땅크여단의 임무에 대해 2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야전규정』상에 독립전차여단의 임무인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주공방향에서 보병을 직접 지원하여, 적 보병을 소멸하는 것이다.³⁰⁾ 다른 하나는 탱크의 수는 적지만 주공방향에서 전차집단군 혹은 기계화집단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전차부대의 전술적 운용과 작전술적 운용에 대해 고려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전차여단을 보병과 협동하여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는 군사령관 혹은 군단사령관의 작전, 전술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³¹⁾ 북한군은 전략적 상황 판단아래 주공방향에서 보병의 직접지원, 혹은 전차의 집중운용을 통한 전과확대를 추구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전차부대 운용의 문제 외에도 전차부대 편성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대공방어를 담당하는 부대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122mm포병대

27)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164.

28) 『소비에트군사백과사전』 (모스크바, 1977), 4권, p.358.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pp.8~9에서 재인용.

29) 제105땅크여단의 편성은 3개의 전차연대(107, 109, 203)와 1개의 기계화연대(206)로 구성되며, 208땅크교육연대, 제603모터사이클연대, 1개 공병대대, 1개 전차대대(308땅크대대), 1개 기술정비대대, 1개 수송대대, 1개 기병정찰대대, 1개 의무대대, 1개 통신중대, 1개 병기중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광수, 앞의 책, p.9.

30) 『야전규정』, 2. 병종과 각 병종의 전투사령, 21항목, p.21.

31) 김광수, 앞의 책, p.15.

대, 120mm박격포 연대, M-13로켓포 대대 등 포병 화력과, 공병대대의 도하장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야전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반영된 소련군 교리의 기본이었지만, 이를 북한군 부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병력과 장비의 제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유능한 고급 지휘관의 부족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 작전지도간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범은 북한군 군사력 건설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2) 북한군 군사기술과 『보병전투규정』

북한군 군사기술과 관련된 교범중에서 ‘제강’, ‘요강’ 등에서 가장 많은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책이 바로 『보병전투규정』이다. 이 교범은 한국전쟁 이전에 두 번에 걸쳐 출판된다. 1946년 초기 번역되었고, 이를 1949년에 수정 출판하였다.³³⁾ 본 교범은 제1, 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전투원에서 중대에 이르는 소부대 지휘자(관) 교범이고, 제2부는 대대에서 연대에 이르는 지휘관 교범이다. 이 『보병전투규정』은 『야전규정』의 주요 기초를 따르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전 훈련의 참고 교재의 성격을 지닌다.

먼저 『보병전투규정』은 『야전규정』의 하위교범이며, 『야전규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머리말에서는 『야전규정』의 주요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소대~사단에 이르는 중심 편성된 대형에서 동시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지휘관들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휘관을 후면에 위치한다.³⁴⁾ 포병, 전차, 항공기의 협동동작을 강조하고, 공격전투를 기본형태로 선정하며,³⁵⁾ 신속성과 우회, 포위

32) 자세한 내용은 김광수, 박사논문, 참조.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전투규정』 제1부-전투원, 분대, 소대, 중대(민족보위성군사출판부, 1949년도판) 특고(特告)에 의하면 1946년도에 번역된 보병전투규정 제1부와 1부보충을 종합하여 수정출판한 것이 1949년 1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규정부에서 발간된 본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34) 『보병전투규정』 제1권, 머리말 1~2항목.

35) 공격, 방어, 정찰, 행군시, 전투경계, 야전근무시 행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공격전투를 강조하고 있다. 공격전투의 주요 내용은 대형(일렬대형, 일선대형), 적의 화력

능력이 요구되는 기동전을 수행하고, 축성, 퇴각, 포위시 전투 등에 대한 부분 모두 『야전규정』의 기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³⁶⁾

1948년 훈련의 모습을 보면 ‘교육제강’의 참고교재가 『보병전투규정』(제1부-전투원, 분대, 소대, 중대)의 초기본 혹은 수정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보병전투규정』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실제 훈련의 내용과 교범이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교범의 모든 내용을 훈련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교범에서 보병중대는 공격, 강화된 구역 및 심히 강화된 진지에 대한 돌격, 야간공격, 삼림공격, 도하공격, 동계공격, 산악공격, 방어, 교대, 기동방어, 야간방어, 주민지점방어, 삼림방어, 하천방어, 동계방어, 정찰, 동계정찰, 행군경계, 전초경계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한다.³⁸⁾ 비록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였지만, 북한군은 강화된 구역 및 심히 강화된 진지에 대한 돌격과제를 중점으로 훈련하였다. 이는 당시 남한의 강화된 진지를 돌파하는 공격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훈련은 강화된 진지에 대한 공격전투 이외의 전투, 즉 점촌전투와 같은 산악지역 전투, 추격전투,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후퇴작전, 방어작전 등의 임무 수행에 제한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

2) 북한군 전투훈련 계획과 교범의 적용

전투훈련에 있어서 북한군은 1949년에 이미 사단급 전술훈련까지 진행된 반면, 국군의 경우 대부분의 부대는 중대 전술훈련까지만 진행하였다. 그런데 남북한군은 훈련의 실시 체대측면뿐만 아니라, 훈련의 방법, 단계 및 질

과 지형에 의존한 약진 요령, 돌격전투(40~50m 거리 “만세”소리와 함께 적 소멸), 보전 협동공격, 야간공격, 협동동작(경기관총, 포병, 항공기, 전차, 인접부대와의 협조) 등이다. 『보병전투규정』 제1권, 59~87항목.

36) 『보병전투규정』 제1권, 머리말 5~11 항목.

37) 실제 적용된 전투규정 내용과 전투훈련의 상관관계는 본 논문 2. 북한군 전투훈련 계획과 교범의 적용 참조.

38) 『보병전투규정』 제1권, 466~629항목.

차 등에서도 차이가 났다. 북한군은 연도별 명령, 제강, 강령 등에 의하여 수준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전투 훈련은 동계훈련-강평과 검열-하계훈련의 순서로 이어졌다. 전쟁 이전 북한군의 훈련은 적어도 1947년부터 동계훈련, 하계훈련을 설정하고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야외기동훈련을 반복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³⁹⁾ 그리고 훈련 대상에 따라 각각의 훈련 방식과 목표 또한 상이하였다.⁴⁰⁾ 대상별 훈련에 따른 임무는 각각 달랐는데, 이는 김일성의 1950년 신년사에 잘 나타난다. 그는 “각 병종 부대들은 더욱 강화하며, 군사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며, 각종 무기에 정통하며 그의 능수가 되며, 군관은 지휘에 능숙하며, 전사는 전투 임무를 기민하게 리행할 줄 알며, 자각적 군률을 강화하며 (생략) 애국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전쟁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각 대상별 훈련 목표를 강조하였다. 즉 북한군 전투훈련은 각 대상별 임무를 부여하여 수준, 단계별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었다.

(1) 단계별 장교훈련의 진행

장교(군관)훈련은 훈련수준에 따라 지휘관 훈련부터 시작하여 야외연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장교의 지휘관 훈련모습은 1947년 『전투훈련계획제강』을 통해 사단전술에 대한 작전구상 훈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이후 1949년 하계훈련기간에는 6월 황주에서 야전에서의 지휘관(군단장, 사단장)의 지휘조치와 참모의 상황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시행되었다.⁴²⁾ 1947년 훈련은 당시 장교훈련(참모부 훈련) 7가지 방법⁴³⁾ 중에서 지휘관 훈련에 해당되고, 1949년 훈련은 참모부 야외연습

39) 김광수, 박사논문, p.66.

40) 북한군은 “전사들은 전술, 사격, 체식, 체육 훈련”을 중심으로, 하전사는 “전사들의 교육 훈련과 군관들의 보조자” 교육을, 군관은 “부대지휘와 각종병종협동동작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부대는 조선 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 2호(1950.10.31), p.26.

41) 황명중, 『전투훈련계획제강』 (1947), RG242, SA 2009, Box 5, Item 9.2.

42) 김광수, 박사논문, p.70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pp.166~168.

43) 7가지 훈련방법이란 장교들의 전술적 지식 함양을 위해 학습과제를 연구하는 지휘관

또는 지휘참모연습 과정에 해당된다. 즉, 7가지 훈련방법은 단계별로 수행되는 지휘관 및 참모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단계 이론교육에서 7단계 부대 야외기동훈련까지의 일련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군이 적어도 1947년도에는 1단계 이론교육을 시작하였고, 1949년도에는 참모부 야외연습과 지휘참모연습을 거쳐서 사단 야외기동훈련까지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군관들의 훈련모습은 1950년 민청훈련소 훈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⁴⁴⁾ 당시 제1민청훈련소는 소대~연대 전술에 대한 훈련을 『보병전투규정』 제1부와 제2부를 교재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술훈련의 달성 목적이 각 지휘관이 타 병종 및 인접부대와와의 협동동작 및 배속기재와 증원기재에 대한 지휘법, 그리고 편제와 정찰훈련 등을 강조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각 부대는 1950년 4월 1일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술훈련시 대대장조는 보병중대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부대대장조는 공격전투시 보병소대에 대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사격훈련, 분대장 및 하사관조 교육도 진행되었다.

제1민청훈련소는 6월 15일까지 완료할 1단계 훈련을 5월말에 조기완료하고, 부대는 하기 전투정치훈련에 들어갔다.⁴⁵⁾ 당시 훈련을 조기에 완료하였지만, 많은 미흡과제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군관훈련은 자율학습을 등한시 하고, 일부부대들은 제강도 없이 훈련하며 부하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훈련, 각 참모부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연습을 위한 개인훈련인 참모인원연습, 참모인원연습을 한 개의 집단으로 훈련하는 참모부 군사유희, 참모부가 현지에서 문제를 집행하는 참모부 야외연습, 아군과 적군을 도식하며 완성된 형태로 실시되는 지휘참모연습, 후방공작문제와 후방물자 보장 등에 대한 후방연습, 최종적으로 군대와 함께 실행하는 야외연습을 말한다. 유성철, “참모부훈련 형태와 방법”, 『군사지식』 4 (1950), pp.35~38.

44) 홍종원, 『1950년도 제1기 1개월 전투정치 훈련 계획표』 RG242, SA 2009, Box 6, Item 58.5 ; 홍종원, 『1950년도 5월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 SA 2009, Box 6, Item 58.1.

45) 1950년 5월 27일 명령에 의하면 “제3지소는 1950년 3월 중순까지 기본적인 편제(編在)를 완료하고 각종건설사업과 또한 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하기 전투 전투정치훈련(6.1~8.15) 시행을 명령하였다. 태병열, 『1950년도 하기 제1단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제3지소』, RG242, SA 2009, Box 6, Item 58.2

없고, 하사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른 군관훈련 중점을 하달하고 있다. 미흡분야였던 군관훈련의 경우 정치훈련, 전술훈련, 외국군대 연구, 제병과(통신, 공병, 포병, 전차 등) 연구, 군사지형학, 규정시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증강기재들에 대한 협동동작을 조직하며 지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예를 들어, 제3지소 제1대대의 6월 훈련의 경우에 1~2주차에 하사관조 훈련, 3주차에 대대장조 훈련, 4주차에 부대대장조 훈련을 상기 제시한 과목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훈련하였다.⁴⁶⁾ 이는 5월 훈련의 미흡분야인 하사관 훈련을 비롯한 군관훈련과 제병협동 훈련을 6월 훈련에서 보완하고자 함이었다.

부대 지휘관은 『전투훈련 강령』의 내용을 경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실제화하여 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했다.⁴⁷⁾ 따라서 상급부대 강령, 제강, 요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또한 훈련방법에 있어서 전술연습은 쌍방연습 혹은 적을 설정하여 실제화한 훈련을 실시하고, 음향효과와 조명효과 공포탄, 각종 표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⁴⁸⁾ 1950년 4월 군관에 대한 시험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전술 지식을 요구하였다.⁴⁹⁾ 이와 같이 군관 및 지휘관 훈련의 경우 다양한 훈련방법과 단계별 전술훈련을 통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야전규정』에 입각한 군사전략, 작전술 차원의 전쟁지도, 작전지도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였다. 연대~사단급 전술제대 훈련과 국가와 김일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훈련 위주의

46) 홍종원, 『1950년도 하기 제1단계 6월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제3지소제1대대』 RG242, SA 2009, Box 6, Item 58.3 군관훈련에 있어서 대대장조는 증강된 보병중대의 공격전투, 부대대장조는 보병소대의 전투, 하사관조는 보병부대 전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남포에 있었던 조선인민군 제956군부대 제2대대의 훈련계획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대준, 『동기전투훈련 제2계단 5월분 전투정치훈련 계획표』(1950. 4. 30) RG242, SA 2009, Box 9, Item 92.

47) 김유, “부대훈련에 있어서의 전술훈련 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군사지식』 2(1950), p.7. RG242, SA. 2010, Box 3, Item 2.

48) 김유, 앞의 논문, pp.10~11.

49) 당시 시험문제는 전투행동, 보병과 포병부대 중(소)대장 문제, 미군과 국군에 대한 문제, 내무규정, 위병근무(위술규정), 군사규율, 대열규정, 후방, 통신, 사격, 자동총, 권총, 쌍안경,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군관각종전투훈련시험문제집』(1950년 4월) RG242, SA 2009, Box 8, Item 68.

지휘관 훈련은 한국전쟁 초기 작전지도 미흡이라는 북한군의 한계로 이어졌던 것이다.

(2) 1948년 『전투훈련교육제강』과 소부대(분대~중대) 전술

1948년 훈련은 기초 단계로 소부대전술훈련이 주로 진행되었다. 당시 1948년 12월 '전투훈련 교육제강'은 소부대전술훈련 진행상황을 알게 해준다.⁵⁰⁾ 당시 교육제강은 12월 1~29일 일대에 사단참모장이 작성하였으며, 사격과 기동, 공격전투, 방어시 전장감시 등의 중·소대 전술훈련 과제를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 부사관, 병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 이론 강의가 아닌 김대농장, 김대농장 부근 고지, 풀땅크 고지 등 현지지형에서의 실습훈련으로 진행되며, 소규모(4명)에서 분대규모까지 대항군을 운용하여 '적'이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교범의 활용이다. 특히 『보병전투규정』 제1부의 내용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1948년 12월 1일 12:00~14:00에 사격과 기동에 의한 중대 공격은 부근 고지에서 『보병전투규정』 38조에 입각하여 훈련하고 있다. 12월 29일 08:00~11:00에는 접적상태에서 증강한 보병중대로 적의 방어를 돌파하기 위한 과제를 돌파조직, 출발지점 선택, 지휘정찰, 협동동작조직, 중심지역전투 등의 과제를 김대농장이라는 현지지형에서 『전투규정』 6, 7, 10, 11, 14, 15, 23, 24, 25, 26, 456~465, 492~509에 입각하여 중대 약도, 명령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948년 12월 5일 08:00~12:00에는 김대농장에서 공격전투시 화력자산들과의 협동동작을 조직하는 훈련을 계획하였으며, 12월 2일 09:00~11:00에는 중대방어시 적 감시요령을 김대농장 부근 고지일대에서 4명의 대항군을 운용하여 『보병전투규정』 1부 36~38조 항목에 입각해 교육하고 있다. 12월 27일 09:00~11:00에 공격전투를 위한 사격과 기동을 김대농장 부근 고지에서 『보병전투규정』 1부 57~73조에 입각하여 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병전투규정』을 중심으로

50) 矛忠吉(모충길), 『전투훈련 교육제강』(1948), RG242, Batch 554, Item 7.

1948년 12월 사단에서 계획된 중·소대 전술훈련이 진행되었다.

(3) 1949년 전투훈련과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1949)

1949년은 북한군의 훈련 수준에서 한 단계의 비약을 가져온 해였다. 실전을 앞둔 훈련을 하였으며, 각 사단들은 실제 사단 병력을 동원해 공격작전을 연습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가졌다. 1949년 훈련은 특히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의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이하 『강령』)에 의하여 단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다.⁵¹⁾ 이 『강령』에서는 먼저 병사훈련과 부대훈련에 따른 기본과업과 이와 같은 보병부대 전투훈련의 기준을 설명한 이후,⁵²⁾ 1949년 훈련을 크게 3개 기로 편성하여 그에 따른 훈련 중점을 하달하고 있다.⁵³⁾ 이 『강령』에 입각하여 사단장에서부터 소대장까지 훈련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사단장은 훈련기간별 전투훈련계획표를 작성하고, 연대장은 훈련단계별 훈련을 작성하였으며, 대대장은 주간(週間)계획을 1개월분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중대장은 주간과정표(週間課程表)를, 소대장은 그에 따른 지도상학과 일일 상학조직 및 계획제강 등을 작성하여 훈련이 진행되었다.⁵⁴⁾

『강령』은 훈련 계획뿐만 아니라 각 훈련 중점을 제시하였다.⁵⁵⁾ 1949년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 제1부(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년도판). 본 서적은 육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임.

52) 병사훈련은 무기, 사격, 제식과 군인정신(용감, 주동적, 인내성 등)을, 부대훈련은 협동동작, 공격과 방어, 기동과 화력, 행군, 주민·삼림·강행도하·야간교육, 전차 및 비행기, 경찰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병부대 훈련기준은 민족보위성 명령,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 경험, 본 강령, 구분대와 부대 및 연합부대의 경사적인 전투준비 보증을 들고 있다. 앞의 책, p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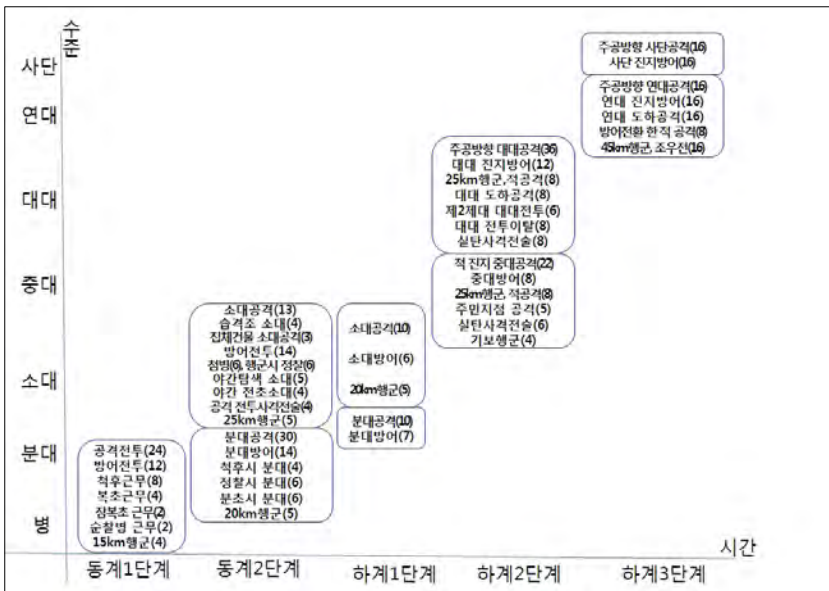
53) 제1기는 준비기간(1개월 반)으로 훈련방식을 강습하고, 훈련 계획 및 교보재를 준비하며, 제2기는 동계훈련(5개월)은 제1단계 병사훈련(2개월 반), 제2단계 분·소대 훈련(2개월 반)으로 진행되고, 제3기는 하계훈련(5개월)은 10일간 훈련준비 이후 제1단계 분·소대 훈련(1개월), 제2단계 중·대대 훈련(70일), 제3단계 연대·사단 훈련 및 총검열(40일), 그리고 15일간 집단군(군단) 연습과 기동연습을 계획하였다. 앞의 책, pp.3~6.

54) 계획작성에 대해서는 앞의 책, pp.7~13. 각종 노획문서에서는 제대별 작성문서의 특징을 본 『강령』에서 제시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 앞의 책, pp.14~36.

김일성의 신년사에 “전체군관, 하사관, 병사들은 선진적 군사기술을 습득하며 각종 병기들을 정통하여 군관은 지휘에 능숙하며 병사는 전투에 능숙한 조직있고 규율있는 전투력있는 군대”가 되어야 함을 기본 중점으로 하여, 하사관 및 군관 교육방법과 훈련과목별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⁵⁶⁾ 또한 “협동동작의 문제의 충분한 습득 달성을 위하여 중대 전술연습은 연대장, 대대 및 연대는 사단장이 작성”하도록 한 점 역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동계훈련 말에는 소대전투사격 전술연습을, 하계훈련 말에는 소대~대대 전투사격 전술연습으로 훈련을 완성토록 하였다.

〈그림 1. 단계별 전술훈련 단계〉



* 출처: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 제1부, 내용을 도식화함.

56) 예를 들어 전술훈련의 경우, 공격전투훈련은 제식전술상학, 전술연습, 전투사격전술연습의 단계로 진행된다. 제식전술상학에서는 대열, 전투서열, 전진방법, 돌격방법, 소산 및 전개 등을 교육하고, 전술연습에서는 쌍방적(雙方的)으로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만 적을 가설(假說)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식전술상학 이후 전술연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정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통신 및 중장 기체까지 동원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강령』에서 제시된 1949년 전술훈련은 소대에서부터 사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술훈련을 위한 “각 병종들에 대한 일반과목”을 설정하였다. 특히 보병부대 전술훈련의 기준서는 모두 『보병전투규정』이며,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결국 보병부대의 경우, 전술훈련을 위한 일반과목 훈련 이후에 『보병전투규정』에 입각한 훈련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단훈련은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단훈련을 위한 기준서도 제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보병전투규정』의 연대훈련을 완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1949년 보병 부대 훈련에 대한 시간 배정이다.

<표 1. 1949년 보병부대 훈련배당표>

과 목	연 간	동계훈련(5개월)			하계훈련(5개월)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정치교육	160	80	40	40	80	20	40	20
전술훈련	512	231	56	175	281	38	139	104
사격훈련	324	174	116	58	150	50	90	10
제식훈련	124	82	46	36	42	13	20	9
체육훈련	120	60	39	21	60	12	35	13
규률	기율	12	10	10	2	2		
	내무	24	20	16	4	4		
	위수	20	20	16	4			
공병훈련	34	18	10	8	16	8	8	
화학훈련	18	9	7	2	9	3	6	
군사지형학	10	4	4		6	2	4	
병기학	12	6	6		6	6		
군대수송	8	8		8				
위생훈련	10	6	6		4	2	2	
춘계검열	16	16		16				
야영준비	36				36	36		
추계총검열	40				40			40
예비	40	16	8	8	24	8	8	8
합계	1,520	765	380	380	760	204	352	204

* 출처: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부대 전투훈련 강령』 제1부 내용정리.

(4) 1950년 '민청훈련소' 훈련과 신병 훈련

1949년 후반기부터 북한군의 전투훈련은 사단급 훈련까지 시행되어,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⁵⁷⁾ 사단 전술훈련뿐만 아니라 대동강의 공병도하훈련과 제105땅크여단으로 승격된 대규모 탱크부대 훈련도 진행되었고, 이어서 1950년 4월에는 전군적인 검열로 이어졌다.⁵⁸⁾ 전군적인 검열 이후 5월 하기훈련이 시작되면서 전투훈련은 전쟁준비를 위한 전투명령으로 이어졌다. 당시 공격에 참가하는 부대 이외에도 예비 병력 확보를 위한 훈련이 지속되었다.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민청훈련소 훈련과 신병훈련이었다.

먼저 민청훈련소 훈련이다. 1949년 말까지 북한은 6개의 보병사단, 1개의 전차사단을 충실하게 훈련시켰으나, 1950년 3월부터 '민청훈련소'라는 이름으로 편성하기 시작한 3개의 예비사단(제10, 13, 15사단)에 대한 훈련은 6개 보병사단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⁵⁹⁾ 이중에서 제1민청훈련소(후에 제13사단)의 제3지소(후에 제23연대)의 훈련계획은 주목된다. 제1민청훈련소 제3지소 지소장은 3월 22일, 새로 신설된 훈련소에 대한 제1기 훈련을 195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시행하며, 제1단계를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단계를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훈련을 완료하고자 하였다.⁶⁰⁾ 예를 들어 제1민청훈련소 제3지소 제1대대의 제1기 1단계 전투정치훈련계획(4~6월)에서는 정치훈련(24~26H)과 전술훈련, 사격훈련, 기타훈련(제식훈련, 규율, 내무규정, 전술훈련, 공병, 반화학, 지형학, 위생, 수의 등)으로 편성되었다.⁶¹⁾ 일반 소총병을 기준으로 볼 때 공격 전투시 병사동작에 대해 4월에는 16시간에서 5월에는 26시간으로 전술훈련이 강화되었고, 또한 4, 5월 모두 사격훈련은 42~43시간으로 집중적으로

57) 김광수, 박사논문, p.70.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pp.166~168.

58) MA, RG 23, KLO REPORT, #518(May 25, 1950).

59) 김광수, 박사논문, p. 73.

60) 태병열, 『1950년도 하기 제1기 제1단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 SA 2009, Box 6, Item 58.6.

61) 홍종원, 『1950년도 제1기 1개월 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 SA 2009, Box 6, Item 58.5 ; 홍종원, 『1950년도 5월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RG242, SA 2009, Box 6, Item 58.1.

편성되었다. 즉 공격전술과 사격훈련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공격전술과 사격훈련이 완료한 제1민청훈련소는 6월 훈련에서는 단계적인 전술훈련을 진행하였다.⁶²⁾ 분대 전술훈련과 중대 전술훈련을 『전투규정』 제1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하도록 하고,⁶³⁾ 사전 군관훈련과 단계별 전술훈련 이후에는 방어로 전환한 적에 대한 증강한 보병 중대의 공격전투, 증강한 보병 대대의 공격전투(1대대(7.23), 2대대(7.26), 3대대(7.31)), 증강한 보병 연대의 공격전투(8.3)로 야외 전술 훈련을 계획하였다.⁶⁴⁾ 즉, 제1민청훈련소의 경우 대대급 훈련까지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전투력 발휘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격포, 포병, 공병 등 제병과를 통합한 공격전투 훈련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다른 보병사단의 훈련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이며, 또한 『야전규정』에서 강조한 제병협동동작, 공격전투를 중요시하고, 전술훈련의 경우에는 『전투규정』 제1부에서 소부대전투기술을, 『전투규정』 제2부에서 부대대장과 대대장반에 의해 간부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병 교육훈련은 제식훈련과 체력단련 위주로 시행되었다. 보병중대 제4기생 '전투훈련강령'은 제식훈련, 체력단련, 기타훈련으로 편성된다.⁶⁵⁾ 먼저 전술훈련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식훈련은 도수동작(32H), 집총동작(32H), 전장에서 이동방법(20H) 등 48시간, 체력단련은 기계제조(27H), 총검술(창격전, 37H), 수영(30H) 등 97시간, 독도법(군사지형학)

62) 우선 병사훈련은 분대성원에서 실시하고, 구분대의 공격전투는 제식전술 훈련과 전투사격 전술훈련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훈련하되, 전술연습은 쌍방연습으로 진행하고 대대 전술연습시에는 통신기재 및 증강 무기까지 참가하여 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태병열, 『1950년도 하기 제1단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제3지소』.

63) 홍중원, 『1950년도 하기 제1단계 6월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제3지소제1대대』.

64) 태병열, 『1950년도 하기 제1단계 전투정치훈련계획표 제3지소』 이외에도 교육부지소장 지룡섭은 하계전투 1단계(6.1~8.15)에 후방구분대인 수위(부상마 후송, 전술 등), 수송(변속기, 축전지, 발전기, 승·하차 등) 등에 대한 전문훈련을 22시간 반영하여 전투근무지원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지룡섭, 『1950년도 하계 제1단계 후방구분대 전투정치훈련 계획표 제3지소』, RG242, SA2009, Box 6, Item 58.4 참조.

65) 『전투훈련강령』 보=중대(제4기생용)(1950).

40시간, 생화학 훈련 6시간, 철도 및 자동차에 의한 물자 수송 8시간, 통신 훈련 4시간, 위생훈련 9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병 교육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부대에 전입한 '신대원'은 1949년 훈련을 마친 '구대원'과는 다른 훈련을 하였다. 이는 제956부대 제2대대의 5월 전투정치훈련 계획표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⁶⁶⁾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대원의 교육은 1~2주에 집중시행하고 있으며, 신대원은 1~4주까지 시행하여 총교육 시간이 다르다. 구대원은 전술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신대원은 전술보다는 사격훈련과 병기분과제에 해당되는 공병, 화학, 위생 등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대원과 구대원 교육시간 비교>

구 분	총교육	정치	전술	사격	특수해상훈련	기 타
구대원	77	10	29	9	16	특수전술(11), 기타
신대원	148	28	18	41	21	체육(4), 제식(10), 지형(2), 공병(5), 화학(2), 위생(3), 위술(4), 기물(6), 기타

요컨대 한국전쟁 이전 북한군 전투훈련은 소련군 교범을 활용하여 적어도 1947년 이후부터는 연도별, 단계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진행되었다. 1947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는 훈련은 군관(장교) 훈련이었다. 군관(장교)의 훈련 정도는 그 부대의 훈련 수준과 연결되므로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1947년도에는 사단전술에 대한 작전구상 등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이론 수업이 있었지만, 이후 지속된 군관 훈련은 1949년에 사단 야외기동훈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1947년의 중점이 군관훈련이었다면, 1948년도에는 소부대 전술훈련이 『보병전투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관훈련에 의해 전술적 식견을 갖게 된 각 군관들에 의하여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훈련의 저반을 형성하였다. 전쟁

66) 조선인민군 제956군부대 제2대대 대대장 백태준, 『동기전투훈련 제2계단 5월분 전투정치 훈련 계획표』 (1950. 4. 30) RG242, SA 2009, Box 9, Item 92.

발발시 국군의 경우 중대급 훈련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부대 전술훈련을 통해 기반을 다진 북한군은 1949년에 그 성과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에 동기훈련과 하기훈련을 통해 사단 기동훈련의 모습까지 완성되는 훈련 과제와 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9년에 훈련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50년에는 정규사단 외에 예비사단 혹은 신병 교육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단적인 예로 ‘민청훈련소’에 의한 훈련으로 1947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훈련 과정을 축소한 바와 같이 군관훈련, 개인전투기술에서 연대 훈련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신병에 대한 전투기술 훈련이 진행되었다.

3. 전투훈련의 성과와 지속성

1) 38도선 충돌, 초기 전투와 전투훈련

(1) 38도선 충돌을 통한 훈련 성과 확인

북한은 38도선 충돌을 국군의 ‘무장침습’으로 상정하였고,⁶⁷⁾ 국방부에서도 38도선의 침공 목적을 국군 병력을 소모하여 분산시키고, 유격대 침투

67) 북한 공간사에서는 국군의 ‘무장침습’의 목적은 북한내 혼란과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도발을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며, 북한의 전투능력을 탐지하고, 임전태세를 검증하며, 실전능력을 함양하고, 전술적 지점을 선점한 이후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시도하기 위한 침략전쟁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군에 의해 1,836차례의 충돌이 있었으며, 벽성군 일대(‘49. 5. 27), 양양지구(‘49. 2월초, ‘49. 6. 29), 송악산(‘49. 7. 25), 은파산(‘49. 6월 하순) 등을 대표적 사례로 뽑았다. 이 중에서 은파산전투는 북한군에게 정치, 군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내무성극단에서 은파산전투를 소재로 연극을 만들어 경비대 군인들의 용감성, 영웅주의, 군민일치의 사상 등을 전파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북한군의 “정치도덕적 우월성”을 보여 주어 “우리 군대의 우월성을 잘 형상”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 pp.58~64. 김일성, “연극 〈은파산〉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50년 2월 27일)”, 『김일성전집』 11, pp.147~150.

를 용이하게 하며, 국군의 군사력을 시험하고, 북한군 군사력을 과시함에 따라 전쟁계획을 은폐하고자 침공하였다고 보았다.⁶⁸⁾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전투였던 송악산, 은파산 전투를 중심으로 국군의 군사력을 시험한 북한 김일성의 전력평가라는 측면에서 전투훈련을 중심으로 38도선 충돌 사례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개성(송악산, 292고지) 전투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훈련 수준과 그에 따른 전술에 있어서 국군의 전술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우회를 통한 공격, 기습, 주공과 조공 등에 의한 전술보다는 오직 포병 사격 후 고지 점령을 위해 보병을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육박전을 수행하는 정면공격만을 수행하였다.⁶⁹⁾ 또한 송악산전투에서는 지원화력조차 불가능하여 보병의 돌격전으로 커다란 희생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중일전쟁을 겪었던 여단장 김석원의 지휘능력과 경험의 한계이며, 국군의 훈련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북한군의 훈련과 수준은 높게 평가되었다. 『전진역사』에서도 “북한 괴뢰군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병력이었으므로 전황이 대단히 불리하였다”고⁷⁰⁾ 하여 북한군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전술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개성전투에서 북한은 정치사상적 우월성뿐만 아니라⁷¹⁾ 국군과 북한군의 전술 및 훈련 수준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전력차를 재확인하기 위해 북한은 국경선에서의 또 다른 탐색전인 제1차 웅진전투를 일으켰다.

1949년 6월에 발생한 제1차 웅진전투는 북한군이 당시 국군의 전술과 사기를 시험하기 위한 전력탐색전이었다.⁷²⁾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평소 훈련 상태가 고도 수준에 도달되었으며, 특히 포병화력운용에 있어서 명중률이 양호하고 보병의 전투의식도 왕성한 반면에, 국군 제12연대는 여순사건의 토벌에 대한 전장훈련 경험으로 정규전과는 근본적으로 전투양상이 상이한

68)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p.250.

69) 정병준, 앞의 책, p.344.

70) 보병 제1사단사 편찬위원회, 『전진역사』 (1966. 2), p.6.

71) 개성전투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는 5월 4~5일 발생한 국군 제8연대 제1대대(표무원 소령), 제2대대(강태무 소령) 등 2개 대대의 집단 월북사건(368명 월북)과도 연관된다. 양영조, 앞의 책, pp.185~187.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해방과 건국』 (1967), pp.507~509.

유격전 개념에 의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용감성은 발휘되었지만 협조된 공격을 도외시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⁷³⁾ 즉, 웅진전투에서 정규군 훈련 부대와 유격전 개념의 전장훈련 경험 부대의 차이가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훈련의 차이는 전술의 변화(주공의 전환)와 신병교육을 마친 제13연대가 은파산에 투입되면서 해소될 수 있었다.

1949년 8월에 발생한 제2차 웅진전투는 북한군의 6월 전력탐색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7월 25일에 민족보위상 겸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이 해주에서 “8월 10일까지 북한이 웅진을 점령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8월 3일에 최현에게 “8월 10일까지 웅진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8월 2일부터 8일까지는 38선 경비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인 내무상 박일우가 110명의 소련 군사고문관들을 대동하고 해주와 벽성을 방문하였다. 또한 8월에는 소련으로부터 수입된 탱크가 대부분 38선을 따라 해주지역에 배치되었다.⁷⁴⁾ 이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된 김일성과 박헌영의 웅진 점령의 의도였다. 또한 이 전투의 결과는 북한의 관심과 흥분을 유발시켰다.⁷⁵⁾ 북한은 이 전투에서 국군 제18연대 제2, 3대대가 완전 섬멸되었고, 유기 시체 62구와 포로 7명의 전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으며, 나아가 8월 11일 경비대에 77명의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을 수여하였다. 은파산 점령 이후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에서 자신감을 가진 김일성은 곧바로 웅진반도 부분 점령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구했다. 김일성의 “미군 철수 이후 38도선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또 38도선의 충돌로 인해 인민군 전력이 우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과 로동신문에 나타난 “오늘 공화국의 무장력이 얼마나 장성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38도선에서의 남조선의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의 침입을 철저히 격멸 소탕하고 있는 38경비대의 전투성과만으로도 넉넉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⁷⁶⁾ 결론적으로 국군 제18연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 건국』, p.509.

74) K MAG, G-2 P/R, No. 151, 159, 163, 188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p.117.

75) 정병준, 앞의 책, p.406.

76) 『김일성선집』 제2권(1953), p.380, 『로동신문』(1949. 8. 12), 양영조, 앞의 책, p.193. 이외에도 '49년 8월 12일 슈티코프와의 대담에서도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수의 국경충돌을

대의 훈련 미숙과는 대비되게, 북한은 화력을 이용한 중앙돌파라는 대대~연대급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와 같이 2차 웅진 충돌은 북한의 본격적인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훈련의 성과 때문에 전력의 차이는 더 벌어졌고, 김일성은 북한군이 국군에 비해 전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3차 웅진충돌은 북한 경비대 2개 대대(38경비 제2, 6대대, 포병 1개 대대) 병력 10월 14일에 은파산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⁷⁷⁾ 제3차 충돌에서 북한군은 화력에 이용한 중앙돌파가 아닌 우회기동을 구사하였다. 즉, 10월 14일 05:00에 은파산에 500여 발의 포격을 집중함과 동시에 은파산 정면에 설치된 지뢰지대를 회피하여 은파산 후방 삼각고지(제2연대 5중대 방어)에 주공을 선정하여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5중대는 05:30에 탄약소진 등의 이유로 후퇴하였으며, 5중대 후퇴는 곧 제8, 4중대가 후퇴로 이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은파산을 점령할 수 있었다.⁷⁸⁾ 제3차 웅진 충돌까지 진행된 일련의 38도선 충돌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훈련과 전술에 대한 전력탐색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은 정치훈련과 전투훈련의 성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이는 1949년 동계훈련 강화로 이어졌다.

요컨대 38충돌의 연대급 전투에서의 북한군 전술과 훈련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즉, 보병과 포병 연합에 의한 중앙돌파 공격, 중앙돌파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은파산의 우회공격 등은 북한군의 훈련수준을 가늠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연대급 전투가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1949년 이전까지 실시된 북한군의 연대급 훈련과 연관된다. 1950년 2월에 창간이후 매 월 발간된 『군사지식』에 실린 글들과 노획된 많은 문서들 중

통해 인민군의 전력이 남한군보다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의 톤킨 공사도 김일성은 "38선 지역에서의 충돌경험에 의하면 남한군의 전투수행 능력은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77) 제3차 웅진전투와 관련해서는 양영조, 앞의 책, pp.199~20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 건국』, p.519.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해방과 건국』, p.519.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연대급의 공격, 방어전투와 이때의 포병 및 공병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다.⁷⁹⁾ 이와 같은 연대급 훈련의 기준은 소련군 교리를 그대로 번역한 교범 『보병전투규정』 제1, 2부였다. 즉, 전쟁이전까지 북한군 훈련은 소련군 교리에 입각하여 연대급 훈련에 충분히 숙달되었고, 그 훈련의 결과를 38층돌을 통해 완성되었던 것이다.

(2) 전쟁 초기 전투훈련의 강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지체하던 7월 1일 스탈린은 미군의 참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빠른 진격을 요구하였다.⁸⁰⁾ 스탈린의 빠른 진격 요구는 군사전략 및 작전술적 마인드가 부족하였던 북한에게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소련군의 작전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다. 7월 1일 스탈린에 의한 지시에 의한 작전지도는 북한의 '전시동원령' 공포, 미국의 '무차별 폭격'에 대한 국제적 항의, 그리고 북한군의 지휘체계 개편으로 이어졌다.⁸¹⁾ 특히 인민군총사령관을 최용건 대신 김일성이 스스로 군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략적 및 작전술적 측면에서는 소련에 의존하였지만, 기술적 수준에서는 달랐다. 기술적 수준에서 최용건은 단기전투훈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여 전투훈련을 강조하였다.

7월 5일 보위성 전투훈련국의 명령에 의하면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1950년도 단기전투 정치훈련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

79) 박문, “보병연대장의 지휘소 조직과 설”, 『군사지식』 3(1950), pp.26~30. ; 박관철, “보병연대의 행군과 조우전투에 있어서의 경찰계획 수립과 조직 및 수”, 『군사지식』 3(1950), pp.31~37 ; 군관훈련강습소, 『보병연대가 진지방어를 돌파할 때 포병의 보장(련포군)』, RG 242, SA 2009, Box 6, Item 130.2.

80) 김광수, 박사논문, p.180. ; 기광서, “한국전쟁 속의 스탈린”,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p.122. ; 코로트코프(가블릴), 어건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 II (서울: 동아일보사, 1993), pp.44~45.

81) 전시동원령과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대한 항의는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pp.107~110. 지휘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김광수, 박사논문, pp.181~183. 특히 지휘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이 운용했던 전시체제를 축소해 놓은 것이었으며, 소련군사교문들이 전선사령부와 각 군 집단사령부에 약 25~35명이 작전에 관한 조언을 함으로써 작전지도와 전장지도가 소련의 지도에 의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으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일 10시간씩 15일간 교육하도록 명령하였다.⁸²⁾ 교육의 내용으로는 모든 과업을 보장하는 문화교양사업, 전투조직 및 지휘, 제병 협동동작에 대한 지휘관훈련,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부훈련, 각종전투형태에 대한 분대~중대전술과 협동동작에 관한 전술훈련, 개인 무기와 편제무기에 대한 사격훈련, 제식훈련, 체육훈련, 규정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병부대의 경우에는 정치훈련(15H), 전술훈련(77H), 사격훈련(52H), 공병훈련(4H), 구급법(위생훈련, 2H)으로 150시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⁸³⁾ 다른 병과들은 지휘관 훈련이후에 포병, 공병, 후방부대 등 임무 및 병과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제시되었다.⁸⁴⁾ 전투병과 훈련뿐만 아니라 '50년 8월 5일 내무 행정의 발전 강화와 대내 군사적 제도 확립을 위한 행정부대 전투훈련도 진행되었다.⁸⁵⁾

82) 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전투훈련명령(1950. 7. 5), RG242, SA 2009, Box 10, Item 152.

83) 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시간배당표(1950. 7. 5), RG242, SA 2009, Box 10, Item 152. 또한 1950년 7월 1일 보위성 전투훈련국에서 작성한 『1950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에 의하면 161시간을 하도록 하였는데, 전술(77H), 사격(52H), 제식훈련(10H), 체육훈련(10H), 규정(6H), 공병(4H), 위생(2H)을 편성하였다. 단기전투훈련 교과 편성을 보면, 규정(규률, 내무규정)은 정치훈련의 일환이며, 전술과 사격, 그리고 체력단련 등 군사기술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1950. 7. 1) RG242, SA 2009, Box 10, Item 153.

84) 지휘관훈련에 대한 방법으로 연대(대대)장은 전술훈련(공격전투시 증강한 보병대대(중대)의 적진지 방어돌파, 8H)으로 제병 협동동작 조직과 대대(중대)지휘에 대한 장교들의 숙련도를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지형학(지도 및 방위각에 의한 지형관정, 2H)으로 현지 지형판단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포병에 있어서는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28일동안 280시간 교육하도록 계획하였다. 정치훈련(28H), 사격훈련(18H), 공병훈련(5H), 구급법(2H)과 같은 일반훈련을 53시간 교육하고, 이후 각 전문분야별로 특수훈련을 173시간씩 하도록 하였다. 통신에 있어서는 전화기 설치훈련(30H), 가설훈련(68H), 전술특수훈련(5H), 전화기 공작(22H)로 125시간을, 공병에 있어서는 문화정치훈련 15시간, 사격(16H), 구급법(2)과 같은 일반군사훈련을 18시간, 그리고 도로작업(12H), 교량도하작업(20), 진지구축(20), 폭파(26H), 장애물(22H), 전술훈련(17H)과 같은 특수훈련으로 117시간을 편성하였다. 후방지역에서도 조직계획부장(함인복)은 정치훈련(15H), 공병(4H), 위생(2H), 사격(48H), 제식(23H), 후방전술 등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송, 수의, 의무 등이 제 병과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년도단기전투정치훈련계획』 (1950. 7. 5) 참조.

85) 훈련지도원, 『군사학제강집』 (1950), RG242, SA 2009, Box 6, Item 26. 전투훈련을 제식훈련(12H), 내무규정(2H)으로 배정하여 시행하였다.

훈련에 대한 전투훈련통계보고서를 통해 훈련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살펴볼 수 있다.⁸⁶⁾ 제343본대 참모부의 경우 1950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46시간을 계획하여 119시간을 실시하였다.⁸⁷⁾ 이후에 7월 중순 훈련의 결과 미흡 과제, 혹은 과목의 중요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1950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치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에 대한 훈련이 진행되었다.⁸⁸⁾ 당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투훈련이 위병근무 수행에 따른 훈련이 제한되고 전투훈련장령 및 교재(교범)가 없어서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지휘관들이 역량과 기능을 발휘하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 단기훈련 계획은 계획으로부터 실시, 결과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미흡하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북한군은 8월 공세 실패 이후 8월 20일에 현행 작전을 중단한 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거쳐 새로운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⁹⁾ 즉,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협조된 공격을 준비하였다. 협조된 공격 준비 과정에서도 이를 위한 전술훈련이 진행되었다. 특히 제18보병사단 참모부의 1950년 「단기전투정치훈련장령」은 당시 전시 전술훈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⁹⁰⁾ 본대훈련은 공격전투, 방어전투, 정찰, 전초임무시 분대훈련으로 65시간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소대훈련은 공격전투, 습격조, 방어전투, 야간전투, 행군, 수색, 소초 근무시 보병소대 훈련으로 64시간을 편성하였다. 이어서 중대훈련은 18시간, 대대훈련은 16시간으로 공격과 방어 위주로 편성하였는데, 모두 참고교재는 『보병전투규정』으로 하고 있다. 전술훈련 이외에도 독도법(군사지형학), 구급법(위생훈련), 공병훈련, 사격훈련, 수류

86) 리현순, 『전투훈련통계보고서』 (제343본대참모부, 1950. 8. 10), Batch 325, Item 28.

87) 정치교육은(실시11H/계획12H)이었으며, 전술교육(228H/258H), 사격(29.8H/35.8H), 체육(2H/4H), 지형학(2.5H/4.5H), 병기학(3.3H/6H)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88) 리현순, 『전투훈련통계보고서』 (343본대참모부, 1950. 8. 10), RG242, SA 2010, Box 1, Item 110.

89) 김광수, 박사논문, p.220.

90) 18보사 참모부, 『1950 단기전투정치훈련장령』(1950. 9. 8), RG242, SA 2009, Box 4, Item 41.

탄과 같은 필수과목과 박격포, 경기관총, 중기관총 등 특수화기에 대한 교육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 단기전투훈련은 전쟁이전 전술훈련의 집약 및 반복이었다.

2) 소련군 교리에 의한 전투훈련의 지속성

한국전쟁 이전 형성된 북한군의 전투훈련의 체계, 교리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련군 교범에 입각한 훈련체계가 동일하고, 『야전규정』의 교리인 제병협동전투와 기동전을 강조하며, 당시 교범과 현 교범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훈련체계가 동일하다. 우선 연간훈련체계가 동기훈련, 하기훈련, 그리고 검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게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⁹¹⁾ 북한군은 12월부터 4월까지 동기훈련, 6월부터 9월까지 하기훈련, 이어서 정기 전투 준비 검열을 한다. 한국전쟁이전과 다른 점은 4월에 부업 준비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군 전투훈련의 특징인 최고사령관의 훈련 명령에 의해 훈련이 시작되는 점 역시 동일하다. 연간 훈련일정뿐만 아니라 각 훈련의 진행과정 또한 유사하다. 1949년 전투훈련과정에서처럼 동기훈련은 11월에 훈련 준비, 12월에 병영 위주의 기본과제 훈련, 이어서 병종별 훈련과 종합훈련 및 행군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히 1949년 전투훈련과정이 소련군 교범을 번역한 『보병부대전투훈련강령』임을 고려한다면, 소련군 교리의 전통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군사교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군 군사전략 및 작전술의 기본이 된 소련군 번역교범인 『야전규정』에서는 제병협동전투와 기동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군사교리는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군 기계화부대 전술훈련은 공군의 폭격과 대규모 포병의 사격 이후 탱크가 돌

91) 현재 북한군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이정연, 『북한군에는 전쟁이 없다?』(서울: 플래닛 미디어, 2007), pp.162~186 참조.

격하고 그 뒤에 장갑차와 자주포, 방사포가 따라가며, 헬기가 근접하여 탱크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⁹²⁾ 전차사단은 사단 전체가 투입되는 전선돌파작전보다 군단 참모부의 전술에 맞춰 일부 지역에 대한 보병사단의 지원, 돌파, 점령 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다. 서부전선 2군단의 경우 중심 진출을 목표로 하여 장갑차, 자주포, 방사포가 함께 전진하며, 훈련할 때에도 행진 중 사격은 기본이고, 주야간 사격까지 포함하여 진행되는데, 모두 기동전 교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⁹³⁾ 또한 북한군은 제병협동작전을 추구하고 있다. 포병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자주화 및 전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공병부대는 군사도로 개설, 도하작전, 건설 등의 훈련을, 반항공부대는 비행기 식별 및 사격 훈련, 특수부대는 공중 강습 등 병과별 훈련이 진행된 후,⁹⁴⁾ 매년 2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연대, 사단별 종합훈련으로 제병협동작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시대별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전, 전략무기 등 새로운 교리가 추가되거나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전에서의 군사교리 기본틀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 교범의 내용이 한국전쟁 이전 교범의 내용과 현 교범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북한군 경비총국에서 발간한 『훈련제강』 교범에 나타난 훈련 패턴은 한국전쟁의 훈련 패턴과 거의 동일하다.⁹⁵⁾ 1948년 9월에 소련군 교범을 번역하여 간행된 『강행도하』도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도하장비가 일부 추가되었지만, 그 기본 교리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의 훈련 모습이 현 북한군에 투영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북한군은 중국군을 별로 참고하지 않지만, 구소련

92) 이정연, 앞의 책, p.175.

93) 위의 책, pp.232~233.

94) 위의 책, pp.188~212. 예를 들어 경찰부대 주요훈련으로는 경찰 전술, 납치, 암살, 폭파, 무장 강행군, 숙영지 굴설, 은폐, 변장, 위장, 암호 해독, 통신술, 각종 적군무기 조작법, 야지 생존법, 위생학, 지형학, 전투수영, 운전기재 조작법, 고공 및 저공 낙하산 강하, 격투, 단도법, 적군 이론, 적군 각 부대의 지역별 배치도와 부대 마크, 부대 구호, 주요 장군, 장교들의 인적 사항 숙지 등이다. 위의 책, pp.207, 242.

95) 국군정보사령부, 『북괴군 전술훈련제강(소대장용)』(1995)

군대나 러시아 군대의 장비, 편제,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고 많이 연구하는 편이다.⁹⁶⁾ 북한군은 전통적으로 기본 전투 단위를 중대로 규정지었는데, 기본 전투단위, 기본 생활 단위를 중대로 규정한 것은 한국전쟁 때 부터이다.⁹⁷⁾ 이와 같이 교범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형성된 북한군 전투 훈련 체계의 전통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의 훈련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군 보병부대 훈련은 소련군 교리에 입각한 훈련체계를 구상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훈련을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1947년부터 본격화된 북한군 전투훈련은 이후 38도선 충돌 시에는 연대급 전술훈련까지 완성되었고 훈련 명령이 전투 명령으로 이어질 정도로 북한군의 훈련수준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군 교리에 입각한 훈련 체계와 훈련 내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시 전투훈련의 군사적 전통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일정 부분 변화되었지만, 그 기본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소련군 교범을 어떻게 활용하여 전투훈련에 투영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군 전투훈련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였던 소련의 교범을 번역, 발간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소련은 “현대전쟁의 승리자이며, 선진 군대”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교범을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군사과학, 즉 군사전략과 작전술 측면은 『야전규정』을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이 교범에서는 소련군 교리의 특징인 공세주의, 섬멸주의, 기습과 화력중시,

96) 이정연, 앞의 책, p.160.

97) 위의 책, p.231.

기동전 등이 나타나 있다. 특히 이를 수용한 북한군은 병협동동작과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당시 병력과 장비의 부족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체대급 이상의 지휘능력 부족은 전쟁 초기 북한군의 한계로 이어졌다. 반면 전술과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군사기술 측면에서는 각 병과별 교범들이 발행되었는데, 특히 제병협동의 기본 병과인 보병의 경우에는 『보병전투규정』 제1, 2부를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북한군 노획문서를 통해 1948년부터 1950년에 훈련한 참고자료가 모두 『보병전투규정』이었으므로, 보병부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범 역시 이 교범임을 알 수 있다. 작전술 제대의 훈련, 장비, 지휘능력의 한계와 달리, 전술적 측면에서는 『보병전투규정』을 중심으로 연대급 훈련이 완성되었고, 이는 전쟁 초기 북한군이 신속하게 진격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전투훈련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또 당시 전투훈련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 이전 북한군 훈련과정의 군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훈련의 결과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49년도에 발생한 일련의 38도선 무장충돌에서였다. 개성 전투에서 국군은 포병 사격 이후 보병이 진격하는 정면공격 전술을 반복하였지만, 북한군은 주도면밀한 계획과 병력의 집중으로 초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북한의 전력탐색전이었던 제1차 웅진전투에서 국군은 유격전 개념의 토벌작전 수행에 의한 전술을 구사한 반면, 북한군은 보병과 포병의 협동동작과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남북한 전력차가 발생하였다. 제2차 웅진전투에서 북한군은 화력을 이용한 중앙돌파라는 연대급 작전을 구사하여 전술적 성과가 달성되었고, 제3차 웅진전투에서는 우회기동전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모두 소련군 교리를 그대로 번역한 『보병전투규정』에 입각한 연대 전술 훈련의 결과였다. 훈련의 결과가 38도선 무장충돌에서 북한의 군사력 우위로 나타나자, 김일성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38도선 충돌 이후에도 한국전쟁 초기 단기전투훈련을 통해 전시 전투훈련을 재강조하고 있다. 전략 및 전술적 측면에서는 스탈린의 전쟁지도와

소련 군사고문관의 작전지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전술적 수준에서는 달랐다. 이는 최용건의 단기전투훈련 명령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전쟁 이전의 훈련과정을 더욱더 압축하여 전투기술에 필요한 소부대 훈련이 동일한 훈련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8월 공세 실패 이후 9월 공세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보병전투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전쟁시 훈련은 단지 한국전쟁 이전 군사력 건설의 과정으로 일단락되어지지 않았다. 그 군사적 전통이 아직도 현 북한군에 잔재되어 있다. 즉, 보병부대 정규전 교리에 있어서 소련군 교범에 입각한 훈련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연간훈련 및 각 훈련의 진행과정 등의 훈련체계가 동일하다는 점, 『야전규정』에 나타난 기동전과 제병협동동작이 강조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의 교범과 현 교범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전 북한군이 어떻게 훈련하였는지 고찰함은 북한군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1. 12. 1,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북한군 창군, 전투훈련, 전략(戰略), 전술(戰術), 교리, 교범, 38선
충돌, 야전규정, 보병전투규정, 군사력 건설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NKPA's Combat Training Using the Combat Manual from the Soviet Union before the Korean War

Jang, Sung-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Soviet Field Manual was adopted and reflected in the combat training manual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This combat training was divided into two parts: 'Military Science'(strategy and operation) and 'Military Technique'(tactics). When NKPA was established(1945~1950), 'The Field Regulation' was taken as NKPA's main manual in the aspect of 'Military Science' which emphasized cooperation and mobility during warfare. Moving on, 'The Infantry Combat Regulation' which was included in the 'The Field Regulation' was chosen as the standard manual for NKPA infantry in the aspect of 'Military Techniqu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it was created based on the Soviet Union's manual from related documents like RG242 NARA as well. From this, soldiers of NKPA could be trained well and this led to the outbreak of the war on the 38th Parallel. As for the positive results for North Korea, Kim Il Sung gained confidence on his military power which had clear superiority over that of ROK Army. Later, the training based on the manual strengthened NKPA and contributed to success in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Then, Kim stressed the importance of following this manual continuously and included 'The Infantry Combat Regulation' in it. Even though North Korea accepted the truce negotiation later, the process mentioned above continued to reflect the Soviet Union's manual in the modern military training of NPKA today.

Key Words :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Combat Training, Strategy, Tactics, Doctrine, Field manual, Collision on the 38th Parallel, the Field Regulation, the Infantry Combat Regulation, Military Build-up